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7호 [투게 제25836호] 주제 106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드높이 올해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수산전선은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중요한 전선이며 어로전투는 곧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제도보위전입니다.》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위에 바다향

동해의 어장을 다그쳤아 겨울철어로전투에서 성과 확대

기다 물고기 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신평원양수산연합기업소와 강원도수산관리국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집중적인 어로전투로 매일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이고있다.

원만히 준비하여 일단 물고기잡이가 시작되면 총동원력을 발휘할 수 있게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의 수심척의 고기배들은 일제히 중심어장에 달려나가 물고기잡이전투를 시작하였다.

집결이 수행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물고기잡이가 시작되자 어로공들과 함께 제일 먼저 출항하여 날마다 싸우며 어로전투를 긴장하게 벌리고있다. 이들은 겨울철어로전투로 물고기잡이성과를 부단히 확대하면서 생산실적이 높은 고기배들의 경쟁을 일관화하여 기망당 어획고를 높이고있다.

은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가득 차넘치게 할 불같은 열의에 원신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이 힘찬 투쟁을 벌였다. 집중어장을 신속히 다그쳤은 이들은 집중과 분산을 배합한

적극적인 어로전투를 힘있게 벌려 11월에 들어와서만도 전어(의 물고기잡이실적을 기록하여 판리국적인 전두목표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통원수산사업소에서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더 많은 어획고를 기록하기 위한 중산투쟁, 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면밀 성과를 거두고있다.

소의 어로공들은 자제의 힘으로 어구들과 예비부속물들을 빈틈없이 갖추고 고기배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날마다 실적을 높여들었다.
장력, 송도원수산사업소에서는 과학적인 어군함선에 기초하여 출어일수를 늘임으로써 두루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면밀 성과를 거두고있다.

식사업소에서도 배수리, 어구수리를 신속있게 진행하여 어획물보에 따르는 신속한 가공으로 높은 어획고를 보았다.
오늘날 물고기잡이실적은 단순한 생산수치가 아니라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현으로 증명하는 가 못하는가를 명백히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것을 깨닫는 심장마다에 간직된 이들의 격렬한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있다.

신평원양수산연합기업소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신평원양수산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가득 차넘치게 한 일년인고 물고기잡이전투에서 거세를 올리고있다.

물과 어로공들을 축하해주면서 당의 수산정책관철에 불리없이 있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적극적인 어로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한 신년사의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일년인고 물고기잡이전투에서 위훈을 창조하도록 그들의 심정을 불을 지피는 화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모제)와 양화수산사업소에서 탄약을 잃어우면서 어장이 마련되는 곳마다에 고기배들을 기동성있게 진출시켜 선상마다 물고기들을 가득 채우고있다. 일군들은 황금배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 수산부대 일군들처럼 고기배들에 올라 물고기잡이전투지휘를 기동성있게 하여 매일 많은 어획량을 기록하고있다.

시업소에서는 매일매일 전투실적을 사회주의경쟁도표판에 올리며 어로공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당의 수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겨울철물고기잡이에 한결같이 펼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원만히 준비하여 일단 물고기잡이가 시작되면 총동원력을 발휘할 수 있게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의 수심척의 고기배들은 일제히 중심어장에 달려나가 물고기잡이전투를 시작하였다.

집결이 수행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물고기잡이가 시작되자 어로공들과 함께 제일 먼저 출항하여 날마다 싸우며 어로전투를 긴장하게 벌리고있다. 이들은 겨울철어로전투로 물고기잡이성과를 부단히 확대하면서 생산실적이 높은 고기배들의 경쟁을 일관화하여 기망당 어획고를 높이고있다.

은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가득 차넘치게 할 불같은 열의에 원신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이 힘찬 투쟁을 벌였다. 집중어장을 신속히 다그쳤은 이들은 집중과 분산을 배합한

적극적인 어로전투를 힘있게 벌려 11월에 들어와서만도 전어(의 물고기잡이실적을 기록하여 판리국적인 전두목표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통원수산사업소에서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더 많은 어획고를 기록하기 위한 중산투쟁, 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면밀 성과를 거두고있다.

합동어로전투에 펼쳐나선 양화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

본사기자 김명남 특약

합동어로전투에 펼쳐나선 양화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

합동어로전투에 펼쳐나선 양화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

합동어로전투에 펼쳐나선 양화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

합동어로전투에 펼쳐나선 양화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

합동어로전투에 펼쳐나선 양화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

합동어로전투에 펼쳐나선 양화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

합동어로전투에 펼쳐나선 양화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



합동어로전투에 펼쳐나선 양화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 본사기자 김명남 특약

연 수백km의 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

함경북도에서

자연흐름식물길을 많이 건설하여 온 나라의 관계체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성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에서는 자연흐름식물길개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안의 농업부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부단히 애로와 난관을 지역자강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여러 지역들에 수백km에 달하는 능력이 온 저수지들을 건설하고 수백km에 달하는 중소규모의 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하는 자랑스러운 위훈을 세웠다.

도안의 많은 지역들에 중소규모의 자연흐름식물길이 건설됨으로써 수많은 양수기, 전동기가 필요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전기기를 쓰지 않으면서도 수전정보의 농경지에 관계 영향을 보다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지대발출을 논으로 개간하여 알곡수확을 높일수 있는 중심과업의 하나로 판이하고 힘있게 내밀었다.

도농총경리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을 시, 군들에 파견하여 저수지와 자연흐름식물길건설에 대한 장악지도사업을 강화하게 하는 한편 연유를 비롯하여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농총경리위원회와 시, 군당위원회,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건설장에 전투위치를 정하고 능숙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높은 실적으로 화답

216사단 해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북부철길청년들격대에서

216사단 해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북부철길청년들격대에서는 철길건설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고있다. 이들은 철길건설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216사단 해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북부철길청년들격대에서는 철길건설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216사단 해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북부철길청년들격대에서는 철길건설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216사단 해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북부철길청년들격대에서는 철길건설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고있다.

단천발전소건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서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단천발전소건설에서는 단천발전소건설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서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단천발전소건설에서는 단천발전소건설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서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단천발전소건설에서는 단천발전소건설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서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단천발전소건설에서는 단천발전소건설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고있다.

과수부에서 지난해보다 수만t의 과일을 증수

과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역적특색의 원목으로 5개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전투적투쟁을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를 빛내이는 지방산 과수물을 이룩하였다.

과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역적특색의 원목으로 5개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전투적투쟁을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를 빛내이는 지방산 과수물을 이룩하였다.

과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역적특색의 원목으로 5개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전투적투쟁을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를 빛내이는 지방산 과수물을 이룩하였다.

과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역적특색의 원목으로 5개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전투적투쟁을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를 빛내이는 지방산 과수물을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김명남 특약

과학기술강국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펼쳐주시어

위대한 당의 영도하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주의강국의 번영을 향하여 폭풍처럼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가 뜨겁게 새겨져있다.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주도해나가는 기둥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자국의 과학기술력향상 생산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에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과학기술이 앞서나 가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가 된다.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와 봉쇄속에서 자국의 힘과 기술로 우위를 점하고 우리 식으로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며 우리의 손으로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놓아 일떠세우는 모든 성과들은 과학기술이 앞장서 내달릴 때 역경도 순경으로 전환시킬수 있고 적대세력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있다.

나라의 진보적인 과학기술이 세계적 단수준에 올라선 나라,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강국의 비배를 알아오시며 불철주야의 자축자락을 수놓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그의 승교한 뜻에 따라 사회주의조선이 어떻게 눈부시게 솟아오르는가를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길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야 하는 진인미담의 길이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가 당대 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오직 자력자강의 길만이 이 땅에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실현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유일한 길, 승리의 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다고 밝혀주시었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자강력을 비강히 증대시켜 우리 힘,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가까운 앞날에 종합적과학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서 과학기술강국건설의 목표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인 영도로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다.

일심단결과 불굴의 굳센 의지로 새 세계 삼엄현황을 타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길이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시작되는 뜻깊은 주제 101(2012)년 대양들의 정국평창에서 울려 퍼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고귀한 지시를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민족적자존심과 과학적창조력, 믿음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승리의 노래이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어리어온다. 우리의 첫 실용위성인 인공지구위성 《평리성-3》호 2호기가 지구를 바르고 광활한 우주를 향하여 솟아오르던 환희의 그 순간을.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리상과 념원을 싣고 날아오른 우리의 위성은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강국건설에서 단 한순간도 늦추고 싶지 않다. 공민한 단 한순간도 늦추고 싶지 않다. 공민한 단 한순간도 늦추고 싶지 않다. 공민한 단 한순간도 늦추고 싶지 않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리상과 념원을 싣고 날아오른 우리의 위성은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강국건설에서 단 한순간도 늦추고 싶지 않다. 공민한 단 한순간도 늦추고 싶지 않다. 공민한 단 한순간도 늦추고 싶지 않다.

《우리는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고 그들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 주시었다.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끼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은하과학자처럼 사회주의문명국의 세 모퉁이를 장식하며 일떠세워주시는 우리 원수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양사범대학 공과대학에서 대학원생으로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민족적자존심과 과학적창조력, 믿음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승리의 노래이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어리어온다. 우리의 첫 실용위성인 인공지구위성 《평리성-3》호 2호기가 지구를 바르고 광활한 우주를 향하여 솟아오르던 환희의 그 순간을.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리상과 념원을 싣고 날아오른 우리의 위성은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강국건설에서 단 한순간도 늦추고 싶지 않다. 공민한 단 한순간도 늦추고 싶지 않다. 공민한 단 한순간도 늦추고 싶지 않다.

나라앞에 거창한 과제가 내릴 때마다 과학자들을 굳게 믿으시고 힘과 용기를 안겨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손길이 있어 조선의 과학자들은 새 조국건설시기에도, 전후의 천리마시대에도 조국의 진진과 비약을 떠미는 훌륭한 과학기술적성과를 수놓아 내놓을수 있었다.

과학기술을 제정대수일것을 바라는 과학자들의 념원을 헤아리시고 매년, 매월이 과학철과 같다는 뜻깊은 칭찬을 보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현한 영상이 어리어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기술중시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우리 당의 전략적선언으로 제시하시어 조국건설시기에도, 전후의 천리마시대에도 조국의 진진과 비약을 떠미는 훌륭한 과학기술적성과를 수놓아 내놓을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주제별, 주제별, 주제별, 현대적인 CNC기계설비들에 대하여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었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구천하여오신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길이 우리 힘으로 부딪히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기적의 창조하는 길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며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들려주시었다.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한낱 한시에 공화국영웅칭호가 수여된 경이적인 사연을 우리 어떻게 무심히 되새길수 있겠는가.

우리의 존엄을 높이는 당이 가 펼치는 당중앙위원회의 정치사상적 과학자, 기술자들과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화곡을 남기시는분, 성대한 언변으로 마비해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시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성과를 축하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수서서 삶을 빛내이는 우리 과학자들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고 긍지높은 사회주의인인가.

위대한 당의 그 믿음, 그 사랑을 되풀이해나가는 조선의 과학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 지칠줄 모르는 열의

열정이 우리 조국을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국력강화의 영이적인 사면들을 다예단으로, 원만적으로 밀쳐올리는 강대국으로 우뚝 올려세웠다.

과학기술의 기차는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무한한 애국헌신의 열정을 따라 돌고돌고 내달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며 과학기술보급사업에 적극 돌리시어 그 운영정형을 알아보고 종합인원의 심정마디에 우리는 오직 자기 힘을 믿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세계를 앞서나가야 한다는 굳센 신념을 억척같이 새겨주시었다.

지난 9월 11 1 6 오동농장을 돌아오신 때에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가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것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명철한 두뇌라고 하시면서 당의 농업혁명명령을 관철하자면 인공성이 농업과학연구부문을 중추세우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해주며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주도해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도록 하여 강조하시었다.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압박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발한 전략이 바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강화해나갈 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이 천년 동안에 실재도를 따라 우리 조국은 과학기술의 거대한 위력으로, 자력자강의 빛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선제공격을 짓부셔나감으로써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영도하에 과학기술강국으로 돌출해나가는 주제조선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본사기자 백영민

오늘도 사람들은 미래과학자 거리를 거닐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늘높이 솟아오른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각종 봉사당들과 편의시설들, 휴식터들과 체육공원...

그야말로 멋쟁이거리이다. 하다면 건축물들 그자체가 눈이 부시어 그렇듯 정원을 자아내는것인가, 아니다. 그 모든 건축물마디에 비껴있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세계가 너무도 뜨겁게 여의와 더욱더 웅장하고 화려한 미래과학자거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며 그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할수 있도록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10월 어느날이 되시겠나.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찾아주시었다. 거리는 분수, 녹음, 조형물, 조형물이 완비한 조화를 이루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집들의 시공의 질이 최상의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공생상림, 무모양, 무부양, 자식양, 무양 등에 고강구구와 비를받지 않는 건축양식을 소개하시었다. 그리고 건축양식이 곧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강화해나갈 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이 천년 동안에 실재도를 따라 우리 조국은 과학기술의 거대한 위력으로, 자력자강의 빛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선제공격을 짓부셔나감으로써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영도하에 과학기술강국으로 돌출해나가는 주제조선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본사기자 백영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꾼들은 생각이 깊었다. 우리 당이 과학기술을 얼마나 중시하고있으며 과학의 힘으로 세상을 불도 없는 인민의 탁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가는 조국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미래과학자거리가 웅변적으로 증명하고있지 않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으로 사회주의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과학의 기관차로 사회주의를 전진시키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하시면서 최근신년사에서 미래과학자거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과학자, 연구사들의 생활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떠날수록 미래과학자거리의 준공이 온 나라의 관심속에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미래과학자거리의 살림집들에 대한 세심함이 지적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다그치신 살림집에서 살게 된 영광을 지닌 한 교원은 복잡한 감정을 이렇게 되뇌었다.

생애에는 나라도 많지 않았던 교원의 팔기와 지도됨에 이렇듯 황홀한 거리,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을 건설하는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이보지 못하였다. 진정한 우리 교육자들을 향하는 애국자, 혁명가로 깊은 내성취 주시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좋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품이다. ... 이것이 어떤 한 교원의 심정이라고한 하라.

본사기자 김철현

크나큰 믿음, 고귀한 지침

거듭 강조하신 과학중시

주제 88(1999)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원(당시)을 찾으신다.

그이께서는 여러 연구소들과 연구실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어 나라의 과학연구사업에 더욱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나서신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과학자들에게 한평생의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달로가 지난 어느날 하루에 만도 그이께서 보내주신 은경 어린 선물이 어리석게나 과학자

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꾼을 전화로 찾으시고 고공출장자들을 과학원에 보내줄 때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과학을 중시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전화를 끊으시었지만 일꾼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 장군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교시.

그이의 절절한 가르치심은 우리의 과학자들만이 아닌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영원한 메아리로 울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과학자들이 재간이 있다고,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함흥분원에 힘찬 과학연구실비율을 보충하여주겠다고 하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일꾼들에게 과학인재들은 나라의 재부이며 민족의 자랑이라고, 그들은

다고 하여도 그것을 리용하는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온을 낼수 없구나. ... 과학연구사업에서도 사상이 기본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가르치심은 이곳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을 어찌 남당과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애를 쓰고 열정을 다 바쳐갈 불같은 열의로 끓어오르게 하였다.

끝까지 밀어주어야 한다시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농업과학자들이 한두해 시험해보았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여 실망해 세진 일꾼들을 불러놓고, 만일 성공하도록 그들을 끝까지 고무해주고 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이의 교시를 격정속에 받아안으며 일꾼들은 생각하였다.

전체의 위대한 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 믿음과 사랑속에 연구사업을 하는 우리의 농업과학자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긍지높은 사람들이겠나.

본사기자 김철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지름길을 열어가 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을 대할 때마다 가슴뜨겁게 새겨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과학자들을 위한 모든것을 다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몇해전 5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공 과학자휴양소 건설공사를 돌보셨다.

그이께서는 숲이 무성하던 곳에 골짜기를 우뚝출출히 솟아오른 건설장의 정경을 바라보시며 과학자휴양소건설은 자신께서 잘 마무리하고, 자신께서 직접 미친을 잡아준 휴양소는 과학자휴양소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알려진 후수가 있고위에는 수림이 우거져있는 연공호기구의 정경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지 않았다. 바로 이런 명당지대에 우리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가 일떠서게 되는데는 너무나 행복하고 긍지높은 사람들이겠나.

본사기자 김철현

그이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휴양소를 준비없이 꾸려내면서 나서는 파열음을 제시해주시었다. 과학자휴양소 준비를 위해서라도 휴양소건설이 이요가운데 불어넣어 줄것을 가꾸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었다.

건설공사가 진행되면서 휴양소건설에 대한 문제, 휴양소에 실내수영장도 잘 건설해주시고 휴양소건설과 남시미도 꾸려주며 체육공원을 비롯한 편의시설들도 그후에 갖추어줄데 대한 문제...

그후 8월 또다시 휴양소건설

월드도 살았던 피로를 풀게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자신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면서 과학자들을 위해서는 자기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새라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들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의 이렇듯 각별한 손길에 떠날수록 연공과학자휴양소는 짧은 기간에 훌륭한 완공되게 되었다.

로 깊이 하리 주신 그 다신 사랑을 여겨 한두 마디의 말로 다 전할수 있겠나.

하기에 연공과학자휴양소에서 세기 휴양을 하게 된 국가와 학원의 한 연구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의 금방석에 과학자들을 앉혀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품을 잊지 못하였다. 이 세상에 부러울것이 없다고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였다.

정녕 그것은 과학자들을 위한 사랑인 어깨를 안고 하시며 주시신 은사와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우리 과학자들모두가 떠치는 심장의 고귀한 신성이심들로 펼쳐졌다고, 웅장한 수림

속에 솟아오른 정경이라고 거다 한 만족를 표시하시었다.

회상의 수준으로 건설된 연공 과학자휴양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공과학자휴양소는 위대한 뜻을 받들어 당에서 우리의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방석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휴양생들에게 자기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새라 사소한 문제로 놓치지 않고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깊이 하리 주신 그 다신 사랑을 여겨 한두 마디의 말로 다 전할수 있겠나.

하기에 연공과학자휴양소에서 세기 휴양을 하게 된 국가와 학원의 한 연구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의 금방석에 과학자들을 앉혀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품을 잊지 못하였다. 이 세상에 부러울것이 없다고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였다.

정녕 그것은 과학자들을 위한 사랑인 어깨를 안고 하시며 주시신 은사와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우리 과학자들모두가 떠치는 심장의 고귀한 신성이심들로 펼쳐졌다고, 웅장한 수림

본사기자 김철현

세상에 불도 없는 사랑의 금방석

연공과학자휴양소가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받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갖 만족하시며 휴양소건설을 우선시하시며 휴양소건설에 대한 문제, 휴양소에 실내수영장도 잘 건설해주시고 휴양소건설과 남시미도 꾸려주며 체육공원을 비롯한 편의시설들도 그후에 갖추어줄데 대한 문제...

로 깊이 하리 주신 그 다신 사랑을 여겨 한두 마디의 말로 다 전할수 있겠나.

하기에 연공과학자휴양소에서 세기 휴양을 하게 된 국가와 학원의 한 연구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의 금방석에 과학자들을 앉혀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품을 잊지 못하였다. 이 세상에 부러울것이 없다고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였다.

정녕 그것은 과학자들을 위한 사랑인 어깨를 안고 하시며 주시신 은사와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우리 과학자들모두가 떠치는 심장의 고귀한 신성이심들로 펼쳐졌다고, 웅장한 수림

본사기자 김철현

일심단결은 우리 당과 국가존립의 초석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의 과업완수를 위한 오늘의 총동원전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은 혁명적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로 향한다. 그것은 일심단결이 우리 당과 국가존립의 초석이며 우리 혁명의 최강의 무기가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은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북돋아주어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은 최고정치조직이며 국가의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다. 이러한 당과 국가가 자기의 본래의 성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사회에 대한 지도적기능, 통일적지도기능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일심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세계사회주의운동사는 당과 국가가 포괄한 정치지도기능을 초석으로 하지 않으면 혁명을 망쳐놓는것은 물론 자기의 존재까지도 지켜낼수 없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은 일심단결의 력사와 전통을 토대로 하여 창건되고 그 위력으로 강화발전되어온 위대한 당, 불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혁명대오의 일심단결만 있으면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당의 전투력을 백배로 높이고 사회주의정권의 불패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일심단결은 우리 당과 국가의 생명이며 그 위력의 기본담보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과 국가가 혁명적의 항모부, 혁명의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보장되었지만 일심단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당과 국가는 사상무력과 같다.

우리 당력사는 로동계급의 단결성 사상이 있어본적이 없는 위대한 단결의 력사와 빛나고있다. 마치와 낮, 북을 애로세진 담타크에는 평범한 근로대중에게 길이 뿌리박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투쟁해나가는 우리 당의 존재방식, 혁명적정신이 응축되어있다. 일심단결이 당의 생명이며 우리 당의 생명이며 우리 당의 생명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은 일심단결의 토대 위에 선 나라이다. 우리의 국호와 국기에 단결의 승교한 리념과 정신이 깃들여있으며 지구, 지립, 자위,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세가지인 변혁으로 수평과 인민

이 한마음을 뜻이 되어 천리마대교를 일으킨 위대한 단결의 전통이 백만배로 확대되어 세계적인 대성적의 항모부, 혁명의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보장되었지만 일심단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당과 국가는 사상무력과 같다.

우리 당력사는 로동계급의 단결성 사상이 있어본적이 없는 위대한 단결의 력사와 빛나고있다. 마치와 낮, 북을 애로세진 담타크에는 평범한 근로대중에게 길이 뿌리박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투쟁해나가는 우리 당의 존재방식, 혁명적정신이 응축되어있다. 일심단결이 당의 생명이며 우리 당의 생명이며 우리 당의 생명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은 일심단결의 토대 위에 선 나라이다. 우리의 국호와 국기에 단결의 승교한 리념과 정신이 깃들여있으며 지구, 지립, 자위,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세가지인 변혁으로 수평과 인민

이 한마음을 뜻이 되어 천리마대교를 일으킨 위대한 단결의 전통이 백만배로 확대되어 세계적인 대성적의 항모부, 혁명의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보장되었지만 일심단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당과 국가는 사상무력과 같다.

우리 당력사는 로동계급의 단결성 사상이 있어본적이 없는 위대한 단결의 력사와 빛나고있다. 마치와 낮, 북을 애로세진 담타크에는 평범한 근로대중에게 길이 뿌리박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투쟁해나가는 우리 당의 존재방식, 혁명적정신이 응축되어있다. 일심단결이 당의 생명이며 우리 당의 생명이며 우리 당의 생명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은 일심단결의 토대 위에 선 나라이다. 우리의 국호와 국기에 단결의 승교한 리념과 정신이 깃들여있으며 지구, 지립, 자위,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세가지인 변혁으로 수평과 인민



김영남 동지께서 레바논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배이루트 레바논공화국 대통령 미셸 아운 각하

나는 레바논독립 74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커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6(2017)년 11월 22일

김영남 동지께서 레바논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배이루트 레바논공화국 대통령 미셸 아운 각하

나는 레바논독립 74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커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6(2017)년 11월 22일

미국은 극악무도한 반공화국적대소동에 광분할수록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조선 아시아 래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대조선적대공세가 극도에 달하고있다.

지난 21일 트럼프는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실권후 협상없이 떠날것을 위협하며 조지미아를 위협하며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테러지원국》제지정을 끝내 강행할라고 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날 트럼프는 우리에게 《테러지원국》제지정은 이미 오래전에 위협이 될 조지미아를, 북은 핵으로 전세계를 위협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 국제적인 테러행위를 지원하고 《살인정권》이라는 허는 남장하는 권력을 마구 늘어놓으면서 이번 조지미아에 대한 폭은 그와 거대한 나라들과 개별적인물들에 대한 최고수준의 추가제재와 압박조치가 신속 취해질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우상과 국회의원들은 트럼프의 《테러지원국》제지정발표를 놓고 북에 대한 제3국의 지원을 철회하지

않고 기존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여러 활동을 금지시키기 위한 결정, 북정권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중대한 발걸음》, 북을 대외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입을 모아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이번 미대우상성들은 때를 기다린듯 다음날 북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불법자금유입을 차단한다는 구실을 내세우고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해상운수와 관련된어는 우리의 여러 국가기관들과 기업들, 선박들을 추가제재대상으로 지정발표하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방랑한 주력정권에 녹여버려져가는 격으로 일본의 간교한 아베정권이 북과 제정신을 잃은지 오랜 남조선당국들도 트럼프의 이번 폭거에 대해 지지반영이니, 거들어 하며 남북제정 신의 비위를 맞추며 설쳐대고있다.

그야말로 미친개루들의 발악적인 지랄장세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존엄높은 평화애국자인 우리 공화국은 이미 모든 형태의 테러행위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천명하였으며 주요국제단체로 협약을 맺고 가입하여 테러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국제공공체의 입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고있다.

테러가 광대국가인 미국에는 생존수단으로 되지만 우리 공화국은 그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정권이 우리 공화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제지정하는 폭거를 감행한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장그르 말살하려는 또 하나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악행으로서 절대 용납될수 없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제지정들은 그자체가 아무런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불법무법의 추대형성적조도이다.

미국우상성들이 이번 폭거의 범

죄적정체가 드러나거나 위가 갱전지 때우 상징적인 조치로서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것이라느니, 아직도 외교적제재를 희망한다느니 하는 공적인 너드리를 늘어놓는가 하면 우리를 《테러지원국》으로 제지정한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기밀》이라고 하면서 내놓지 못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어찌구무없는것은 세계도처에서 국가전투과 심인, 파괴, 약탈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는 국제테러조직인 미국이 마치 테러감복관처럼 그 누구에게 《테러지원국》감부를 마구 휘두르는 광기를 부리며 세상을 경악하게 하고있는것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원한의 땅 신천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북반부에서 행한 것마다 미제아수들이 감행한 점수도 낮을 불현 대학살안행과 남조선을 감행한 미제침략군부들이 저지르고있는 지명리는 반인륜적범죄를 살인악마의 제국 미국의

홍상을 만천하에 고발해주고있다.

때때로 주권국가들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반정부세력들을 부추겨 정권전복도 서슴치 않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감옥과 파나마미해군기지감옥에서 미국이 감행한 수감자들에게 대한 야만적인 고문안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원하여 불도 없는 이런 흉악대로 범죄자들이 감히 우리에게 《테러지원국》제지정이나 하여 주권국가를 놀아내는것이아말로 적반하장적이지고 새겨진 비극이 아닐수 없다.

미친개도 죽을 때에는 뒤를 찌르고 죽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트럼프의 이번 폭거가 우리의 국가적위협전선의 최종원인을 더이상 막을수 없게 된 미국의 단말미적인 말악이라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또한 트럼프식 《미치광이전략》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합리화하고 미국내부와 국제사회에서 리져나오는 비난을 견제하며 우리에게 대한 제재와 압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들을 다그쳐대보려는 그 흉악한 속내도 다 꿰뚫어보고있다.

하지만 그러한 광기는 막다른 궁지에 몰린 미국의 가련한 신세와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의 남장조치이며 범죄적인 정제만을 더욱 드러낼 뿐이다.

지금 우리 공화국을 감히 《살인정권》으로 배도하며 《테러지원국》제지정이라는 폭거를 서슴없이 감행한 놀라리미치광이 트럼프와 정권세력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탄은 중요와 절박의 기상은 하늘을 찌르며 무섭게 폭발하고있다.

트럼프가 또 한차례의 선전조치고 같은 특대형도발을 해온 이상 그에 대해 수수방탄하고있을 우리 군

대와 인민이 아니다.

미국은 무섭게 치솟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중요가 미국이 바라지 않는 보복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데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트럼프는 우리를 《악마화》하여 고립압살하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미국이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무질없는 대조선제재압박소동과 강도적인 《테러지원국》제지정조치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미국의 행동어부세 따라 우리의 차후 대응조치가 결정되게 될것이라는 것도 각오해야 할것이다.

이 기회에 미국의 폭두각시, 용건이 되어 상권의 비위를 맞추느라 어쩔없는 일본의 아베당파와 남조선당국에도 앞날이 우려된다면 더이상 수구정권고 풍사남제 놀아내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경고한다.

주제106(2017)년 11월 22일 평 양

좋은 방법론은 성과의 비결

어느덧 1000여명의 선봉자들이 전방전선에 뛰어들어 적화강화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좋은 방법론을 세우는것은 어떤 사업이라도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사적인 제1차 전당초급당원대회이후 전당이 초급당원들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부름부름 끊어지지 않았다. 그 사업에서 결정적인 자욱을 새

중시한 단위들과

적을 무찌르는 전투를 작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초급당원들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설계하는에서도 구체화되는 집중할 대상들을 골라 선정하고 그것을 위한 역량전성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위원회에서 첫번째로 평가할수 있는것이 바로 이것을 잘한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원대회에서 주신 강령적지침을 자각구구 심장에 새겨며 초급당원들을 강화하기 위한 사색을 담은 김봉남시당위원장과 김학갑동무를 비롯한 사업위원회 책임인원들은 시인의 명도명령처럼 초급당원들 우선적으로 눈길을 돌리었다.

중요성이 있었다.

명도명령처럼 초급당원들을 중시하는것은 당의 불멸을 명도명령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또한 무려 수십개 단위로도 시인의 단원들에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단위들을 먼저 일으켜세우면 전방을 주저세우는데서 큰

사리원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진 당조직들 가운데는 사리원시당위원회도 있다.

하달면 이곳 사업위원회의 사업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방법론을 잘 세워가지고 사업을 전개한 데 있다.

그런데 사리원시당위원회가 면면히 사리원시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어떤 점이 주목할 만한데 대하여 살펴보자.

자리를 낸수 있었다.

명도명령처럼 초급당원들을 찾아다니는 일군들분담조직도 체계적으로 하였다.

사업위원회 과장이상 일군들이 한해 단위별 방문을 하였다. 이것은 과장이상 일군들이 초급당원들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으려고 강조하거나 요구성을 높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초조직의 역할을 하면서 일군들을 이끌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사업책임일군들은 일제를 들며, 바쁜 속에서도 분담된 명도명령적사업에 책임을 들며, 현지에 자주 나가 초급당원들을 찾아다니는 기초에서 배워주는 사업, 도와주는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사업위원회가 자기가 담당하는 사리원시당위원회의 사업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들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생동한 이야기가 있다.

몇달전 리당위원회가 혁명사적관인 교양리당에 대한 피조장을 계획하고있던 때였다.

리당위원회위원장 만만시당위원장은 시대가 부르는 아

집중적인 료해에 기초한 도와주기로

이 진행된 정황을 료해하도록 하였다. 초급당원이라는 직업은 길도 경매와 학력이 서로 다른 과유 등으로 하여 당사업에 몰아가서 시로 우단점이 있었다. 초급당원들은 료해사업과정에 자기 사업의 좋은 측면과 부족점을 잘 알게 되었다. 즉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치선봉수준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었다.

다음으로 사업위원회에서는 료해한 료재에 기초하여 부족점을 제때에 조치하여 하는 한편 초급당원들을 함께 책임진 임장에서 도와주는 사업을 잘 따라세웠다.

지난봄 어느 한 리당위원회에서 목표는 높이 설정하였으나 당세포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원한지 진행하지 못하는 전황이 나타났을 때의 일을 놓고보자.

사업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발휘한 헌신에 대한 인정을 나타내고 하였다. 그리고 사적관인 교양리당에 대한 피조장을 계획하고있던 때였다.

리당위원회위원장 만만시당위원장은 시대가 부르는 아

다음을 소개하고 이끌어주는 사업이다.

이것을 바로 하지만 초급당원들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료해를 선행하여야 한다.

집중적인 료해에 기초한 도와주기로

이 진행된 정황을 료해하도록 하였다. 초급당원이라는 직업은 길도 경매와 학력이 서로 다른 과유 등으로 하여 당사업에 몰아가서 시로 우단점이 있었다. 초급당원들은 료해사업과정에 자기 사업의 좋은 측면과 부족점을 잘 알게 되었다. 즉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치선봉수준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었다.

다음으로 사업위원회에서는 료해한 료재에 기초하여 부족점을 제때에 조치하여 하는 한편 초급당원들을 함께 책임진 임장에서 도와주는 사업을 잘 따라세웠다.

지난봄 어느 한 리당위원회에서 목표는 높이 설정하였으나 당세포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원한지 진행하지 못하는 전황이 나타났을 때의 일을 놓고보자.

좋은 방법론은 성과의 비결

어머니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심은 어떻게 두어워지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금야군 인흥협동농장 초급당원회의 사업에서 찾아볼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권익을 사업의 절대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만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 어느날 밤, 농장에서는 작업반장이상 초급당원들의 긴급회의가 열렸다.

일군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당면한 영농전투와 관련한 문제까지도 의논하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그들을 기다리던 것은 농장원들의 실정정보수와 관련한 문제였던것이다.

그날 밤의 회의로 하여 몇몇 농장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지체없이 현장을 돌고다니며 대책을 세우도록 강령적초급당원회의는 그들의 실정정보를 기간간에 보다 훌륭하게 꾸려 줄 결심을 하였던것이다.

불과 며칠동안에 그 일을 해낸다는것은 당시의 농장원들에게는 대단한 일이었다. 이미 전에 계획하고 추진하고있는 일들이 적지 않았던것이다.

어느날 영예군인 주상필동

금야군 인흥협동농장 초급당원회의에서

가자들은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들이 당한 불행은 하루빨리 가져주는 일보다 더 중대한 사업이 없다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 인민중심의 승고한 뜻을 광시인민에게 드림없이 구현하려는 초급당원회의의 의지를 뜨겁게 새겨안고 있었다.

근 실정정보수를 위한 총이 큰 전투가 벌어졌다. 물려가 조직되었던 일군들이 앞세워 돌고다니었다. 그들이 부족되는 사재도 손질 말야 해결하면서 인민부부의 자욱을 힘있게 적어가는 속에 피해를 입었던 농장에서는 몇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는 새 집을 건축하게 되면서 되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었다. 인민에 대한 명사부부정신, 인민의 리익과 권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일군들의 투철한 관점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였었던것이다.

초급당원들은 앞장서 서서 살림집들에 포근한 이불로 부터 부엌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생활수품들을 전부모의 심정으로 마련해주었으며 실정살피기에 자기들이 불편이파도 있을새라 마음쓰며 필요한 모든 대책들을 세워주었다.

새 집을 받아안은 주민들은 물론 농장의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초급당원들의 모습에서 어머니당의 슬픔을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었다. 그들은 마음속의 불꽃을 다졌다.

(어머니당을 위해 이 만큼 좋게 바치리라!)

농장에 살고있는 한 영예군인가정에 바쳐진 정성은 또 얼마나 뜨거웠던가.

어느날 영예군인 주상필동

두의 집을 찾았던 초급당원장은 그가 새바퀴를 리용하면서 불시 불연해하는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심한 자책이 감아들었다.

나리에서 그토록 이기고 내세워온 영예군인가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고있던 초급당원회의에서는 영예군인가정의 열광적반응을 비롯하여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관심하며 돌봐주었다. 얼마전에는 집도 새로 건축하게 꾸려주었다.

농장원들을 위해를 생각으로 짜맞춘 이 초급당원군들에게는 크고작은 일이 따로 없었다.

어느날 트로이엔을 때려도, 평범한 농장원의 집에서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제때에 찾아가 병문안도 하고 배당된 대책도 세워준 초급당원들이었다.

그들의 명사부부의 사업이 좋은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당에 대한 무한한 신뢰심을 더욱 굳이 간직하고 당정책시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추동하였다.

인민의 리익과 권의를 최우선으로!

바로 이것이 모든 초급당원회의원들이 모든 사색과 실천의 출발점이고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본사기자 윤 명 철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혁 후 명의 발자욱

당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초급당원들의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원들의 역할을 높여 초급당원들을 최정예전투대로 꾸밀수 있고 당의 료선과 정책관철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있다.

라선청년발전소 초급당원회의에서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보충을 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앞에 나선 혁명사업은 당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중을 혁명사업으로 힘있게 이끌어갈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습니다.》

올해 라선시에서는 발전소건설분과가 선정되었다. 신속되는 전기를 해결하고 인부들 시구 주민세대에 대한 겨울철물공급을 위한 하자면 전정적으로 발전소를 일떠세우야 할것이었다.

현지에서 시의 책임일군들과 공장, 기업소일군들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어기에서 최철 라선청년발전소 초급당원회의는 사재의 힘으로 새 발전소를 건설할의

라선청년발전소 초급당원회의 사업에서

향을 제기하였다. 회의회장이 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미 있는 발전소들의 정상운영을 보장하자고만 하여도 현실 없는데 새로운 발전소를 맡아 건설하겠다고 하니 어찌 그렇지 않았겠는가.

초급당원들이 크게 믿은것은 발전소들의 당원명령이었다. 발전소총원들의 대다수는 체대군인당원들이었다. 지난 시기 초급당원회의는 선하당세포들에서 당원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시하게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당원들속에서 어렵고 힘든일에 남아서 어깨를 들이밀고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투쟁기풍이 높이 발휘되었다. 초급당원들은 당의 부름에 불복을 가리지 않는 당원들의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면 발전소를 얼마든지 일떠세울수 있다고 보았다. 또 발전소건설과정에 당조직의 전투적역할을 뚜렷이 과시하는 계기로 되게 하자는 의도도 있었다.

사업위원회에서는 초급당원회의의 결심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발전소의 당원들로 둘러싸여 조직되게 되었다. 빠른기울을 벌여 회담하며 발전소건설장에 도착한 동력대원들의 기세는 이만저만 높지 않았다.

커다란 감동을 받은 종업원들이었다.

초급당원회의에서는 언젠가 공사가 힘있게 추진되는데 맞게 발전소건설과정에 맞게 조직전투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조국의 북반부에 또 하나의 발전소가 일떠세워졌다.

발전소건설과정에 당원들을 자기들이 되어 활기를 세게 자극하게 하였으며 당의 료선과 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언젠가 선봉부대가 될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성간군 성하잡업전문협동농장 제1작업반 당세포에서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혁명적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당세포원의 위치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6월 어느날 성간군 성하잡업전문협동농장 제1작업반 당세포에서는 뜻깊은 난관이 조성되었다. 매이내내 내린 우박으로 애써 가꾼 많은 면적의 콩나물들이 얼어 갸우뚱하고 순물

이 접어져 누에면이생김없이 절대로 모지되었었다.

방도는 한 한가지였다. 수십리 떨어진 곳에서 풍익을 따서 날려야 하였다. 그러하면 많은 료력이 필요했다. 누에면이 공중에서 일부 생원들을 매내어 먹이보장을 위한 사업에 동원시켜야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자칫하면 누에고치생원에 대한 지장을 줄수 있었다.

(파인 다른 방도가 없단 말입니다.)

다들 안락가운데 모태되고 있을 때 당세포위원장 홍대선

같이 불러대면서 온 선원들 해낸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런데 모두에게 힘을 주며 또다시 전투장으로 남서지 않을을 옮겨주는 사람이 있었다. 당세포위원장이었다.

물도 약한데 그러다가 쓰러지려 할때도 그러는가고 단박하는 사람에게는 그는 말하였다.

피를 뺀 한이 있어도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시켜야 한다. 그날 지휘를 모르는 당세포위원장의 모습을 보며 당원들은 농장원들은 오늘의 총동력전에 얼마나 비상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가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작업반은 불리한 조건을 용감하게 리파해나가는 이런 투쟁기풍으로 누에고치생산목표를 훌륭히 수행하게 되었다.

당세포위원장의 전투적기풍과 품을 보여주는 실례들은 많다.

평양에 환풍의 거풍이라도 더 실어내기 위해 남면적 이슬을 차며 새벽같이 뛰어간 발자욱이 농장원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전부모의 심정으로 관철하며 한밤중의 마음집들이 찍어간 발자욱...

그렇다. 이런 착후들이 있어 우리 당의 발전구속적인 당세포들이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착후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는것이였다.

본사기자 최 영 철



위 사진은 인흥협동농장 초급당원회의에서 진행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어느덧 1000여명의 선봉자들이 전방전선에 뛰어들어 적화강화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유구한 민속 전통과 음식문화가 꽃피는 우리 생활

주부들이 제일 바쁜 김장철이다. 배추를 자르고 무우를 깎고 김치 소를 만드느라 고...



우리 민족의 향취가 어디서나 풍겨오는 김장철이다. 서로 모여앉아 이 집, 저 집의 양념맛을 놓고 흥분도 하고 말...

주부들이 좋아한다

수도의 곳곳에 꾸려진 류경김치공장 봉사매대를 돌아보고

벌써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있는 김치봉사매대는 언제나 흥성이고 있었다.

그런데 김치봉사매대도 생겨나게 되었다. 평양, 봉화산리원,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등 여러곳에...

우리 나라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념된 류경김치공장을 돌아보시며 인민생활향상에 걸맞은 제품을...

그리고 김치봉사매대도 생겨나게 되었다. 평양, 봉화산리원,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등 여러곳에...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 있어서는

안철 식품이라고. 그래서 만만할 수 차례놓고 김치작두가 없으면 아주 맛 없...

각자 독자들이 보내어온 편지를 놓고

미세와 그 추후세력들의 약탈한 제재산업핵동수에서 도 송장장구는 우리 식 사...

김장철의 하루

평원군 원암리에서. 우리 민족의 향취가 어디서나 풍겨오는 김장철이다. 서로 모여앉아 이 집, 저 집의 양념맛을 놓고 흥분도 하고 말...

영예군인가정에 넘쳐나는 향기

천리마구역 화석동 37인민반 김윤경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탄부들을 위한 마음

순천시 직동관평원 로동자 김철수동무는 맑은 인을 책임적으로 하면서도 석탄을 높이 쌓아가는 벽은 힘 이나마 이머시할 엄밀한 단 부들을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있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세계급교양이다

사회제도와 여성들의 운명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의 사회주의적 인민들에게 참된 삶과 행복을 안겨주는 진정함 조국입니다.』

비로한기업소의 한 녀성로 동자의 목소리가 다시금 귀를 울린다. 『고마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아니라면 저같은 녀성이 어떻게 영웅노까지 될수 있었겠습니까.』

모자식간의 도덕의리도, 인간의 초보적인 양심과 윤리마저도 송두리째 앗아가버렸다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나는 장례를 치를 돈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하여 집에 보관하고있었다.

Advertisement for '신천의 불발탄' (Shincheon's Unexploded Bomb) featuring a photo of a group of people and text about social education and women's fate.

